

이창진 ‘野심만만’

기회마다 불꽃타 ... KIA 중견수 싸움 앞서 나간다

오늘 LG와 대결 ... 좌완 김유신 선발



KIA 타이거즈의 '중원 싸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KIA는 20일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황윤호와 오선우를 불러들인 윌리엄스 감독은 나주환과 김호령을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김호령의 말소로 KIA의 '중원 싸움'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시즌을 앞두고 윌리엄스 감독의 구상은 중견수 김호령이었다.

시범경기에서 김호령이 먼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중견수 싸움의 추가 기운이 걸렸다. 그리고 4월 4일 두산베어스와의 개막전 중견수 자리로 김호령의 차지였다.

김호령은 이날 5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고, 이창진은 이날 경기 마지막까지도 벤치를 지켰다.

이창진은 6일 키움전에서 연장 10회말 최원준의 대수비로 들어가면서 우익수 자리에서 2021 시즌 첫 경기를 치렀다.

그리고 4-4로 맞선 11회초 1사 2루에서 시즌 첫 타석에 들어선 이창진은 좌측 2루타를 날리며 5-4를 만들었다. 경기가 KIA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이창진은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7일에도 이창진은 연장전 때 모습을 드러냈다.

11회초 김호령의 자리에 이정훈이 대타로 들어갔고, 11회말 수비에서 이정훈을 대신해 이창진이 중견수로 투입됐다.

이창진은 이날 타석에는 들어서지 못했지만, 동료들과 그라운드에서 8-7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8일에도 9회 마지막 이닝에 이창진이 역할을 맡았다.

1-3으로 뒤진 9회초 1사 1·3루, 이창진은 김호령의 대타로 타석에 들어서 좌측 안타로 1타점을 만들었다.

이창진은 박찬호의 우중간 2루타 때 홈에 들어와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5-3 역전극에 이바지했다.

김호령은 시즌 초반 타격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선발로 나온 4경기에서 13타수 2안타, 0.154의 타율에 그쳤다.

그리고 짧은 시간 강렬한 활약을 보여준 이창진은 9일 NC와의 홈경기에서 마침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11일 NC와의 경기에서 흐름을 내주는 아쉬운 수비 장면도 노출했지만, 이창진은 일단 '화력'으로 경쟁에 나섰다.

이창진은 16일 SSG와의 원정 경기에서 2개의 2루타 포함 4안타를 펼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17일에는 펜스에 부딪히는 허슬 플레이로 아웃카운트를 만들면서 확실하게 윌리엄스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다. 반면 이 수비 이후 승모근 통증을 호소한 이창진을 대신해 중견수로 들어갔던 김호령은 자신의 장점인 수비에서도 실수를 범했다.

결국 공수에서 아쉬움을 남긴 김호령은 퓨처스리그에서 전력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창진이 일단 중원 싸움의 1차 승자가 됐다. 팀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게 최상의 모습이다.

경기 감각이라는 숙제를 안고 내려간 김호령이 윌리엄스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모습으로 재등장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한편 브루스로 한 주를 연 KIA는 21일 경기에서는 좌완 김유신을 선발로 내세워 LG와 시즌 두 번째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창진

KBO, 유소년 야구선수 58명에 장학금 지원

KBO가 유소년 야구 장학금을 지원한다.

유소년 야구장학금 지원사업은 KBO리그가 야구발전기금을 활용해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올해는 유소년 야구선수 총 58명(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10명)을 선정한다.

매월 초등학교는 20만원, 중학교는 40만원, 고등학교는 50만원씩 1년간 총 2억 4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초·중·고등학교의 야구부 소속 선수로 지난해부터 KBSA 또는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초등학교는 4학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야구장학금 수혜자 선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다자녀(만 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 가정 순으로 순위를 정해 이뤄진다. 또 기타 생활형편, 야구성적, 학업성취도, 인성 및 교육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한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5월 11일까지이며, KBO 육성팀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양식,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O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NEWS→KBO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모리뉴와 함께해 기뻐다. 모든 것에 감사”

손흥민, 감독 경질 안타까운 심정

소속팀 토트넘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전격 경질된 데 대해 손흥민(29)이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했다.

손흥민은 19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모리뉴 감독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모리뉴 감독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내 기분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과 함께 일해서 기뻐다”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죄송하고, 함께 한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미래에 행운이 있으시길 바란다”고 썼다.

토트넘 구단은 19일 조제 모리뉴 감독과 주앙 사크라멘투, 누누 산투스, 카를로스 말린, 조반니 체라 등 코치진의 경질을 발표했다. 모리뉴 감독이 2019년 11월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5개월 만이었다.

프리미어리그(EPL) 7위(승점 50)에 머물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유로파리그 16강에서



손흥민-케인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조제 모리뉴 감독(가운데).

/연합뉴스

다나오 자그레브(크로아티아)에 제 탈락하는 등 성적 부진을 극복하지 못했다.

손흥민과 함께 팀 공격을 이끄는 해리 케인도 “보스, 모든 것에 감사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뻐다”면서 “다음 챔피언스리그도 모든 것이 잘 되시길

바다”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남겼다.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 케인 외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루카스 모라,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등 선수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작별 인사를 스톱리를 통해 공유하며 아쉬움을 나눴다.

/연합뉴스

전남 김현욱 K리그2 7라운드 MVP

멀티골로 전남드래곤즈의 연승을 이끈 김현욱(사진)이 K리그2 7라운드 MVP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축구연맹이 20일 7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지난 18일 김천상무와의 홈 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며 2-1 승리를 이끈 김현욱이 MF 부문 베스트 11과 함께 MVP에 선정됐다. 앞서 6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던 김현욱은 이번에는 승리의 주

역이 돼 MVP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김현욱은 0-0으로 맞선 후반 20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박희성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선제골을 만들었다. 김현욱은 후반 38분에는 오른발로 골망을 출렁이게 하면서 멀티골에 성공했다.

전남은 후반 추가 시간 정승현에게 골을 내줬지만 추가 실점 없이 승리를 지켰다.

알렉스의 ‘극장골’로 6라운드 안산전에서 승리를 거뒀던 전남은 연승에 성공하며 2위(승점 12)



까지 뛰어올랐다. 1위 대전하나시티즌과는 승점 3점 차다. 한편 9개의 유효슈팅을 막아내며 광주FC를 울린 포항스틸러스의 골키퍼 강현무는 K리그1 10라운드 최고의 골키퍼가 됐다. 지난 17일 안방에서 포항을 상대한 광주는 15차례 슈팅을 날리며 포항을 공략했지만, 강현무의 선방쇼에 막혀 0-1 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바람의 딸’ 이소미 연속 우승 도전

KLPGA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내일부터 김해에서 열려

2021시즌 개막전 이후 한 주를 쉬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경남 김해에서 이어진다. 22일부터 나흘간 김해의 가야 컨트리클럽(파 72-6813야드)에서 열리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8억원)는 11일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 이은 이번 시즌 KLPGA 투어의 두 번째 대회다.

롯데렌터카 여자오픈과 마찬가지로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엔 취소돼 2년 만에 다시 열린다.

2019년까지 3라운드로 열리던 이 대회는 올해는 4라운드로 진행된다. 총상금도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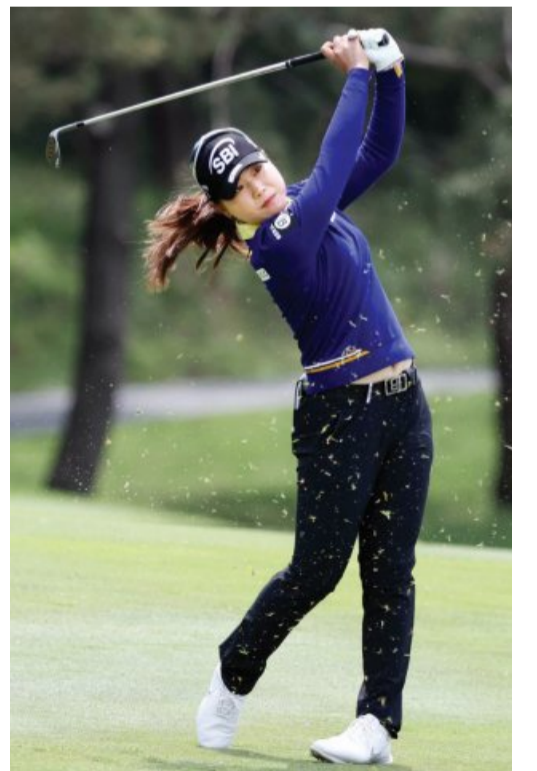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KLPGA 투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 상금 랭킹과 대상 포인트 등에서 초반 선두에 오른 안도출신 이소미가 2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시즌 10월 휴엔케어 여자오픈에서 KLPGA 투어 첫 승을 거뒀으나 더 많은 우승 기회를 놓쳤던 이소미는 올해는 첫 대회부터 기량과 멘탈 모두 단단해진 면모를 보이며 정상에 올라 상봉세에 시동을 걸었다.

당시 신인으로 이 대회에서 K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던 이소연은 2년 만의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

2019년 이 대회 우승 이후 4차례 더 톱10에 올라 성공적인 정규 투어 데뷔 시즌을 보낸 이소연은 지난 시즌엔 17개 대회 중 10개 대회에서 컷 탈락하고 톱10에는 한 차례만 진입했다.

대상 4연패에 도전하는 최혜진과 대항마로 꼽히



이소미

는 장하나는 시즌 첫 승의 문을 다시 두드린다.

장하나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이소미에게 두 타 뒤져 준우승했고, 최혜진은 공동 12위에 올라 몸풀기를 마쳤다.

2018년 챔피언 이소영과 지난해 신인왕 유해란 등도 우승을 노려볼 법한 후보들이다.

외모와 패션으로 소셜 미디어 등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지만 지난해 상금랭킹 109위에 머물고 시드 순위전 예선에서도 탈락해 올해 정규 투어 시드가 없는 유현주는 스폰서 초청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